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nnual Report 2013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들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7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으며 4억 4,60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협력기구입니다.

NEAR
The 9th Working Commi
the 1st Sub-Committee o
제9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
제1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September 10~13, 2013 | Youngam, Jeollanam-d

Contents

메시지 | 05

연합의 주요활동 | 09

1. 실무위원회
2. 분과위원회
   - 가. 개요
   - 나. 분과위원회별 주요활동 :
     방재/교육문화/농업/환경/해양어업/경제인문교류
3. 제8회 실무자 워크숍
4.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

2013 행사일정 | 27

대외협력 네트워킹 | 31

연합 기반 강화 | 37

사무국 | 41

부록 | 45

1. NEAR 회원단체
2. NEAR 옵저버단체
3. NEAR 파트너

NEAR
Delta
Metro
Polis

Working Committee and
ub-Committee on Agriculture
Youngam, Jeollanam-do
Delta
Metro
Polis

메시지

Message

Message

2013년은 연합(NEAR) 회원지역의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해였으며, 이와 함께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에서 다양한 정치 · 경제적 정책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역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영토분쟁, 북한의 핵실험 도발 등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저해되어 깊은 우려를 낳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상반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2008년에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와 2010년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를 기점으로 발생한 유럽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면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으나, 완만한 회복세와 더불어 2013년에는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근접해 가는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동북아시아는 글로벌 위기 동안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부터, 이른바 '3D' 현상이 새로이 나타나면서 향후의 세계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7%대로 낮아진 경제의 저성장(down turn)세 지속, 유럽의 디플레이션 현상(deflation) 대두, 미국의 양적 완화(QE)의 축소정책(tapering)에 따른 신흥국 통화의 평가절하(devaluation) 사태 등이 그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연합(NEAR)은 2012년 유럽지방정부협의회(AER: Assembly of European Regions)와의 협력협정 체결에 이어, 2013년에는 스위스 소재 기후변화대응 지방정부기구(R-20: Regions of Climate Action)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러시아의 사회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확충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013년 9월 제9차 실무위원회가 의장단체인 한국 전라남도 영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에 개최될 제10차 총회를 대비한 의제 선정, 차기 의장 겸 총회 개최 후보지역 선정이 있었으며, 이전의 지역적 편중에서 탈피하여 몽골과 러시아의 회원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분과위원회의 신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연합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지방정부 중심에서 나아가 지방의회, 유관기관,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나가는 등 질적 개선 방안들이 협의되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단체간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새로이 각광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특강 세션을 통해 이해도를 증진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으로는 방재, 교육

문화, 농업, 환경, 해양, 경제인문 등 6개 분과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어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회원 지방정부간의 공동프로젝트 개발과 교류,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동북아지역 경제와 인문교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해양어업분과위원회는 "해양신흥산업 및 블루실리콘벨리 건설에 관한 포럼"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는 2020년에 맞이하는 연합 창설 25주년에 대비한 NEAR의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6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보고서 내용은 회원단체와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연합의 웹사이트는 독립 서버 설치, 홈페이지 내용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초에 재 오픈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 채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연합의 홍보 동영상 제작사업에도 착수하였습니다.

동북아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북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회 '에세이 공모전(Essay Contest)'이 실시되었으며, 중국,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의 청소년 33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기회 제공, 전문성 제고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NEAR 청년인턴십(PioNEAR)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되었으며, 시범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투바공화국간에 한국어 강사 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단계적으로 회원단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향후에는 협력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AER과의 인턴 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북아지역은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이 세계 어느 곳보다 활발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간에 체결된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간의 우호 및 교류협력 협정이 무려 1,05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지방정부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러한 풀뿌리 교류의 확대는 동북아지역의 장기비전인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체(Community) 형성에서도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NEAR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3. 12. 3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김 재 효**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 여러분!
2013년 한 해도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과 회원단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전남에서 개최된 제9차 실무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재, 해양 ·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분과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무국과 회원단체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교통 ·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치적인 긴장 완화 등으로 국경을 초월한 교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간의 관계 또한 세계경제가 아직도 유럽의 재정위기 등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 정치적인 현안들이 예전처럼 한 국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경쟁과 더불어 협력의 틀 속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북아시아가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 문화 등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회원단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동북아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정립과 함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세계 3대 경제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연관성이 많아 산업 · 관광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면서 지역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18년의 역사와 함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회원국들의 공동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동북아의 발전을 넘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13년도 연차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3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장 / 대한민국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연합의 주요활동

Main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교류협력 확대 통한 공감대 형성

1. 실무위원회

가. 행사개요

제9차 NEAR 실무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의장단체인 한국 전라남도 주관으로 영암군 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는 중국 4개 단체, 일본 3개 단체, 한국 11개 단체, 몽골 5개 단체, 러시아 1개 단체 등 5개국 26개 단체대표 60여 명이 참석했다.

나. 주요내용

9월 11일,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와 김재효 NEAR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9차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실무위원회는 2012년 제9차 총회 결과보고, 사무국 주요 활동보고,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NEAR Vision 2020 연구결과보고, 연합의 교류협력 확대방안 제안, 실무위원회 합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9차 총회 결과보고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외사판공실 부주임 양신룬은 제9차 총회에서 경상북도 사무국의 장기존치,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신규회원가입, 전라남도의 2014년 제10차 총회 유치, NEAR 청년인턴십(PioNEAR)프로그램 도입 의결 등의 결과보고를 하였다. 또한 제9차 총회의 주요 성과로는 닝샤 선언 및 4대 행동강령 채택, 우호교류도시협정체결, NEAR의 국제 영향력 향상 등으로 회원단체가 다양한 방면에서 NEAR를 통해 공동번영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무국 주요 활동보고

NEAR 사무국 김동성 처장은 사무국 주요 활동에 대해 보고 하였다. 실무자워크숍 개최, 분과위원회 운영, 회원단체간 교류협력사업 등을 포함하는 회원단체간 교류협력 추진 및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회원단체 파견직원 근무환경 개선, 연차보고서 및 뉴스레터 발간, NEAR Vision 2020 연구용역 추진, 회원단체 주요 관심사업 발굴 추진 등 교류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여러 가지 주요 활동 등을 보고하였다.

연합의 교류협력 확대방안 제안

연합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위한 제안 발표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이 "협력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란 주제로 지방정부중심의 교류협력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회, 민간단체, 기업까지 확대하고 회원지방정부내의 우호도시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는 "공동번영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의 심화"라는 주제로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면서 연합의 총회 등 행사개최 시 회원지방정부간의 우호협력협정체결 등을 동시에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실무위원회 합의문 채택

실무위원회 합의문

① 2016년 제11회 총회 개최지 선정

러시아의 자바이칼주, 이르쿠츠크주 그리고 몽골의 우브르항가이아이막 등 3개 회원단체가 총회 개최를 신청하였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과거 개최여부, 접근성, 경제적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추후 국가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 러시아와 몽골의 각 1개 회원단체로 압축하여 선정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다. 단, 몽골의 우브르항가이에서 개최가 어려울 경우 러시아 2개 회원단체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② 연합헌장 개정

연합헌장 제10조(실무위원회 운영)의 실무위원회 개최주기와 제12조(사무국 구성)의 사무국의 장기존치와 관련하여 헌장에 수정 반영하고 연합헌장 제1조(연합명칭)의 개정안은 한국어 표기에 한하여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되 한국의 16개 회원단체와 협의 후에 확정하여 차기 총회에 상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신설 의결

종래의 경제무역 중심의 운영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인문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참가회원단체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수용 의결되었다. (헌장 제11조에 의거) 단, 각 언어별 표기방식은 국가별로 적절한 표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는 회원지방정부간 체육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육분과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의결하였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다. 부대행사

본 행사 후 현지시찰에서, 참가자들은 중도염전과 우드랜드를 방문하였고 전라남도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산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실질적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플랫폼

2. 분과위원회

가. 개요

연합의 분과위원회(Sub-Committee)는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의 보조기구로, 총회에서 제시되는 특정 의제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거나, 특정 산업이나 주요 의제에 대해 주관(Coordinator)을 희망하는 회원단체의 독자적인 제안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되며, 연합의 가장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1998년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2013년 현재 14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격년으로 운영되지만 일부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편, 2013년 실무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로 바꾸는 명칭 변경이 의결되었고 체육분과위원회 신설을 의결하였다.

분과위원회별 구성 및 주요활동 분야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구성연도	개최횟수	주요활동 분야
경제인문	대한민국 경상북도	1998년	10회	통상촉진, 무역상담, 세미나 등
환 경	일본 토야마현	1998년	11회	표착물 조사, 환경심포지움 등
방 재	일본 효고현	1998년	11회	재해 피해예방, 방재능력 향상
변경협력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2005년	2회	금융, 운송, 세관 인프라 조성
교육문화	일본 시마네현	2007년	4회	인재육성, 문화교류 활성화 등
과학기술	대한민국 경기도	2007년	3회	과학기술교류 등
관 광	중국 허난성	2008년	2회	관광전시전 및 홍보, 협력포럼
해양어업	중국 산둥성	2008년	3회	해양자원 이용 등
광물자원개발조정	러시아 마가단주	2010년	2회	광물자원 채굴과 가공 등
에너지기후변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2010년	1회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체계 등
여성아동	몽골 도르노드아이막	2010년	1회	여성, 아동 관련 정보 교환 등
농 업	대한민국 전라남도	2011년	1회	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
생명의료산업	대한민국 충청북도	2011년	–	의료산업 교류 협력 등
체 육	러시아 사하공화국	2013년	–	체육관련 정보 및 교류

나. 분과위원회별 주요활동

제11회 방재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효고현 고베시와 미키시 일원에서 중국, 한국, 몽골, 러시아의 4개국 15개의 회원단체에서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방재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첫날 환영리셉션에는 효고현 가나자와 부지사를 비롯하여 이성권 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 등 한, 중, 러, 몽 4개국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방재분과위원회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2) 회의내용

이번 분과위원회는 회원단체(산둥성, 헤이룽장성, 대전광역시, 강원도, 연해변경주)의 방재관련사례 발표, 아시아방재센터(ADRC)와 국제방재부흥협력기구(IRP) 등 국제방재기관과의 의견교환 등으로 진행되었다. 방재연수회에서는 "한신 · 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에 있어서의 효고현과 간사이광역연합의 대응"에 관한 강연, 참가 자치단체의 사례발표, 국제방재기관 전문가와 참가자간 의견교환 등이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한신 · 아와지대지진이 주는 방재교훈" 강연을 들으면서 방재관련 정보 ·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3) 부대행사

참가자들은 회의 후 현지시찰에서 재해에 관한 각종 전시와 방재연구, 인재육성, 대규모 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전문가 파견 등에 힘쓰고 있는 "인간과 방재미래센터", 효고현의 광역방재의 중추를 담당하는 "효고현광역방재센터", 지진에 의한 실물크기 건조물의 파괴 검사가 가능한 "E-디펜스" 등을 방문하였다.

제4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8월 3일에서 7일까지 일본 시마네현에서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4개국에서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동북아시아 청년들이 시마네현에서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각 지역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 회의내용

회의는 참가지역 문화소개, "복지"를 주제로 한 간호시설 시찰 및 의견교환회, 일본 전통복을 체험하는 지역문화 소개로 이루어졌다. 또한 참가자들은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교류를 하였으며 각종 파티를 통해서 참가자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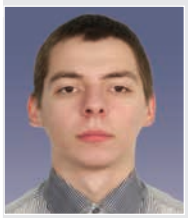
3) 참가자 후기

시마네에 머무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복지시설 견학이었다. 일본은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복지시설 견학을 통해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와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중국은 그러한 일본의 뛰어난 복지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신체적 · 정신적인 측면 전부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감탄했다.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냄으로써 고령화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일본의 시스템은 훌륭한 복지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닝샤후이족자치구 장닝



올해 참가한 행사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는 짧지만 매우 인상적이며 흥미로웠습니다.

노인복지를 주제로 한 회의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현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노인복지상황, 행정 · 민간 대책을 소개하는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러시아의 노인복지와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와 우호를 다지고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사가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마네현과 시마네국제센터를 비롯해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해변경주 안토슈크 안드레이

제1회 농업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9월 10일에서 13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암군 현대호텔에서 중국, 일본, 한국, 몽골의 4개국 32개의 회원단체 및 타 지자체에서 4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농업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방안"을 주제로 전남 3농 정책(농업, 농촌, 농업인) 소개 및 회원자치단체 간 농업교류 증진을 위한 제안 및 논의를 하였다.

2) 회의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방안 및 식량안보 대책으로 기후변화가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농촌진흥청 소규호 기후변화생태과장), 국제곡물 수급 불안에 대비한 식량안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팀장), 저탄소 한국형 무경운농법 연구사례(전남농업기술원 양승구 박사)가 발표되었다. 자치단체별 농업현황, 우수시책 소개에서는 전라남도가 전남도 3농 정책(친환경농업 중심), 몽골이 고비숨베르 농업현황과 우부르항가이 농업기술 개발정책, 중국 산둥성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일본 토야마현이 지산지소운동 촉진 시책을 각각 소개하였다.

3) 합의사항

참가자들은 향후 농업분과위원회 발전방안, 정보교류 및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 전남 3농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현장 방문교육의 필요성, 나라별 재해예방 시범구역 설치 및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이 토의되었다.

이번 농업분과위원회의는 참가한 4개국의 농업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차기 농업분과위원회 개최 시, 전라남도의 3농 정책을 비롯한 각국 선진 농정시책과 동북아지역 농업관련 기술교류와 공동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문제는 어느 한 자치단체나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NEAR 농업분과위원회를 통한 공동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4) 부대행사

회의 후 현지시찰로 참가자들은 보성녹차밭,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각각 방문하였으며 전라남도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산업을 알 수 있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11회 환경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10월 31일, 일본 토야마현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옵저버 포함)의 4개국 8개 회원단체 및 타 지자체에서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환경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 회의내용

환경분과위원회 회의는 환경분과위원회 차기 코디네이터 자치단체 선출 협의를 시작으로 환경분과위원회 활동상황, 개별프로젝트 성과 및 실시상황이 보고되었다. 차기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토야마현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13년 7월 14일부터 2015년 7월 13일로 결정되었다.

개별프로젝트 성과보고에서는 곤도 다카유키 토야마현 환경과학센터 차장이, 최근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황사 등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으며 그 해결에는 우선 통일된 방법으로 환경의 실태를 광역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황사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 모니터링체제 구축"을 보고하였고, 도해조 요시미츠 토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환경보전과장은 "해변의 표착물 조사", 연해주에서는 국제환경포럼 "국경 없는 자연"을 보고하였다. 한편, 나가타 사토루 토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환경정책과장과 박민호 강원도 녹색자원국 환경정책과 주무관은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보고하였다.

특히, 박민호 주무관은 동북아시아의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 강원도 원주시에서 강원도 및 토야마현 주최로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프로그램을 개최했던 것을 보고하였다. 환경보전활동을 테마로 한 이 프로그램에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의 4개국 8개 자치단체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초, 중, 고등학생 62명이 참가하였다.

3) 토의내용

토야마현은 2014년도 활동계획을 설명하면서 2014년에 실시되는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 프로그램(토야마현 및 랴오닝성), 제8회 국제환경포럼(연해주), 해변의 표착물 조사와 표착물아트 제작(토야마현), 동북아시아 환경포스터 전시회(하바롭스크지방)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4) 동북아시아 환경체험 프로그램 보고(강원도) – 환경선언문

2013 환경선언문

2013년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 4개국 청소년들은 환경보전을 위한 의견교환과 정보공유, 환경체험활동을 통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

우리는 자연보호의 중요성, 해양 및 각종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 청소년 모임을 통한 환경보전활동,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저탄소 운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의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논하고,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환경체험 활동을 통해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는 지속적인 우호 교류를 바탕으로 모든 세대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지역의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자는 공통된 사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언제나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강원도 2013년 8월 22일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일동

제3회 해양어업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제3회 해양어업분과위원회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과 유관기관의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창조, 협력,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행사명칭은 "해양신흥산업 및 블루실리콘벨리 건설에 관한 포럼"으로 NEAR 회원지방자치단체 대표, 주칭다오한국총영사, 일본 총영사, 산둥성 연안도시의 해양어업관련 인사 등 3개국 6개 회원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참석했다.

2) 회의내용

자오룬톈(趙潤田) 산둥성 부성장과 김재효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양어업분과위원회 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개막식 후 산둥성 해양어업청 장칭춘(姜清春) 부청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포럼이 진행되었다. 왕쇼우신(王守信) 산둥성 해양어업청장은 "신흥 해양산업의 발전과 블루경제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현재 산둥성이 추진하고 있는 7개의 해양신흥산업기지 건설 등 정책 방향을, 회원지방정부 대표로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수산과 임민호 사무관이 "살기 좋은 농어촌, 농어업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삼농혁신"이라는 주제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각각 소개했다.

또한, 중국해양대학 총장 우더싱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블루경제의 발전방향, 중국 국가과학기술부 발전계획국장 왕샤오팡은 창조적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해양산업, 중국과학원 옌타이 해안대 연구소 뤄용밍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해안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중국수산과학연구원 황해수산연구소장 진셴스가 글로벌화 추세 속에 더욱 명확한 근해어업자원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성을 각각 발표하였다.

3) 토의내용

중국 칭다오 블루경제발전 국제 서미트포럼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해양과학기술과 산업발전, 지역경제협력 및 금융자본의 해양산업프로젝트 촉진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4) 부대행사

본 행사 후, 현지시찰에서 참가자들은 칭다오해안대교, 쟈오저우만해저터널, 금빛 해수욕장을 시찰함으로써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해양어업산업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10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1) 행사개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제주도 하야트 호텔에서 "동북아지역 경제와 인문교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분과위원회에는 몽골,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5개국 25개 단체에서 67명이 참석하였다.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분야에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NEAR 회원단체간 동북아지역 문화 융성과 지역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2) 회의내용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역사전통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사례, 우수한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우수관리 사례"를 주제로 각 참가단체에서 발표를 하였다. 경상북도 사례발표에서는 "마을기업과 마을"(㈜커뮤니티와 경제 상임이사 김재경), "야생초 도시와 농촌, 청년과 노인, 기술과 전통의 창조적 결합"(법인 유한회사 야생초 대표 남우영), "시골살이 10년 서툰 농부의 작은 이야기"(경북 영양 일월산마실권역 추진위원장 권용인)가 각각 발표되었다.

회원단체 주제발표에서는 한국 대전광역시에서 "사회적 기업성공사례," 경기도에서 "2013년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사업," 중국 닝샤후이족 자치구에서 "닝샤 농민협동조합 발전방향," 후베이성에서 "후베이성 푸싱그룹의 성공사례," 일본 효고현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효고현의 사례," 러시아 알타이변경주에서 "지역의 농공업 복합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사례," 사하공화국에서 "야쿠크 전통마을의 삶의 형태"를 각각 발표하였다.

3) 합의사항
참가자들은 사례 및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며 마을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인재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어 주민들이 협력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동의 의견을 보였다.

4) 부대행사
본 행사 후 현지시찰에서 참가자들은 대포 주상절리, 본태박물관, 제주민속촌과 성산일출봉을 시찰하며 제주도의 자연 및 문화를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4 분과위원회 활동계획

2014년도에는 방재, 교육문화, 체육, 변경협력, 관광, 생명의료산업 등의 7개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계획이며, 특히 러시아 사하공화국이 주관하는 체육분과위원회는 올해 창립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사무국에서는 회원단체들의 분과위원회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분과위원회별 공동수행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운영형태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coordinator)의 범위를 넘어 분과위원회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할 경우 관심 있는 회원단체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회원단체에 홍보할 계획이다.

역량강화와 파트너십 구축

3. 제8회 실무자 워크숍

가. 행사개요

NEAR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회원단체 실무자워크숍이 2013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경북 포항시 필로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6개 단체, 일본 13개 단체, 한국 12개 단체, 몽골 12개 단체, 러시아 4개 단체 등 총 5개국 48개 단체 103명이 참가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결속을 강화하고 교류의 방향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나눔과 책임연구소 김영철 소장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회원단체의 사회적 기업 추진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동북아지역 발전을 위한 NEAR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안 및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회원단체 탐방으로 2014년 총회개최 예정지인 한국 전라남도의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견학하였다.

나. 주요활동

특별강연

나눔과 책임연구소의 김영철 소장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영철 소장은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근로자 증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협동과 호혜의 촉진제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외교부 동북아협력팀 한상국 팀장은 한 · 중 · 일 3국 협력현황에 대해 강연하였다. 현재 한 · 중 · 일 3국은 NAFTA 및 EU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메커니즘으로 한 · 중 · 일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협력에 있어 NEAR의 역할 또한 커져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회원단체 발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는 현재 민영기업의 발전현황과 역할, 일본 토야마현에서는 사회적 기업현황과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 몽골 고비숨베르아이막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몽골 도르노고비아이막에서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의 교류협력활동 및 일본과의 보건 기간산업분야에서 교류협력, 러시아 사할린주는 현재 한국과의 협력 발전사례, 러시아 알타이변경주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각각 발표를 하였다.

특히,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아시아 스포츠"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스포츠 분과위원회 신설을 제안하였다. 한편, 러시아 투바공화국 대외경제청 칠기치 온다르 청장은 김재효 사무총장에게 NEAR에서 추진하고 있는 NEAR 청년인턴십(PioNEAR)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어 강사 인턴인력을 요청하는 등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다. 부대행사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탐방

워크숍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한국정원 및 세계정원을 둘러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경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찰스 쟁스(Charles Jencks)가 순천 지형을 디자인한 순천호수정원, 영국 첼시 플라워쇼(Chelsea Flower Show)에서 2년 연속 입상한 한국의 황지해 디자이너 작품인 "갯지렁이 다니는 길", 세계 어린이들의 꿈을 담은 14만 여 개의 그림이 부착된 "꿈의 다리"를 견학하였다.

4.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

NEAR 사무국에서는 회원단체간 협력 · 교류 활성화를 위해 회원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제1회 NEAR 청소년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에세이의 주제는 동북아시아에 관련된 자유주제로 중국단체 3편, 일본 3편, 한국 17편, 몽골 3편, 러시아 7편 등 총 33편이 제출되었으며, 한국 경상북도 포항제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유연주 학생에게는 최우수상이 수여되었다. 한편, 한국의 김지원, 중국의 리자치, 일본의 츠바키, 몽골의 남슈렝, 러시아의 쿠라르 아르잔나 5명에게는 각각 우수상이 수여되었다. 2014년에는 회원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회원단체 청소년이 에세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EAR
The 10th Su
on Economy

2013 행사일정

Event Schedule of NEAR Member Regions in 2013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강원도 (한)	세계겨울축제 국제심포지엄	1. 4 ~ 1. 6	화천군내
강원도 (한)	2013 드림프로그램	1. 5 ~ 1. 17	알펜시아리조트, 강릉빙상장
하바롭스크변경주 (러)	국제실용학문 컨퍼런스〈아태지역 문화 커뮤니케이션〉	2. 14 ~ 2. 15	콤소몰스크
울란바토르시 (몽)	국제석탄투자포럼	2. 21 ~ 2. 22	울란바토르시
광주광역시 (한)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3. 1 ~ 3. 3	김대중 컨벤션센터
효고현 (일)	**제11회 NEAR 방재분과위원회**	**3. 11 ~ 3. 14**	**효고현 고베시, 미키시 일원**
광주광역시 (한)	세계고분자포럼	3. 11 ~ 3. 15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라북도 (한)	제1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4. 16 ~ 4. 19	부안군 대명리조트
전라남도 (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4. 20 ~10. 20	전라남도 순천시
부산광역시 (한)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5. 3 ~ 5. 12	문화회관, 시민회관 등
충청북도 (한)	2013 오송 국제화장품 및 미용박람회	5. 3 ~ 5. 26	오송시내
광주광역시 (한)	세계도시인권포럼	5. 15	김대중 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 (한)	2013 부산국제기계대전	5. 22 ~ 5. 26	벡스코
부산광역시 (한)	ISO(국제표준기구) 국제회의	5. 26 ~ 5. 31	벡스코
NEAR사무국	**2013 NEAR 실무자워크숍**	**5. 28 ~ 5. 30**	**포항시**
광주광역시 (한)	광주국제차문화전	5. 30 ~ 6. 2	김대중 컨벤션센터
강원도 (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6. 8 ~ 6. 10	강릉 종합체육관, 평창알펜시아
부산광역시 (한)	2013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6. 12 ~ 6. 15	벡스코
헤이룽장성 (중)	제24회 중국하얼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	6. 15 ~ 6. 19	하얼빈시
광주광역시 (한)	제11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 자문회의	6. 18 ~ 6. 20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전광역시 (한)	2013 It's Daejeon 국제오픈볼링대회	6. 30 ~ 7. 13	대전 월드컵 볼링경기장
산둥성 (중)	제9회 옌타이 국제와인박람회	7. 5 ~ 7. 7	옌타이시
크라스노야르스크 (러)	국제민속음악과 공예품 축제〈시베리아의 세계〉	7. 10 ~ 7. 14	수센스코예 부락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한)	2013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7. 21 ~ 8. 20	거문오름 및 뱅뒤굴
부산광역시 (한)	제8회 부산국제매직 페스티벌	8. 2 ~ 8. 5	해운대, 문화회관
시마네현 (일)	**2013 NEAR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8. 2 ~ 8. 7**	**시마네현**
제주특별자치도 (한)	2013 제주국제관악제, 제8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8. 10 ~ 8. 18	제주해변 공연장 및 도일원, Seaside Arts Center
하바롭스크 (러)	한러 심포지엄 〈동북아 통합협력의 러시아 역할〉	8. 11 ~ 8. 15	하바롭스크시
부산광역시 (한)	2013 부산국제광고제	8. 22 ~ 8. 25	벡스코
충청북도 (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8. 25 ~ 9. 1	충주시
부산광역시 (한)	제27차 세계인구총회(IUSSP)	8. 26 ~ 8. 31	벡스코
광주광역시 (한)	국제기후환경산업전	8. 28 ~ 8. 31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전광역시 (한)	2013 세계태권도 한마당	8. 28 ~ 8. 31	충무체육관
대전광역시 (한)	제6회 아태도시관광진흥지구(TPO) 총회	9. 3 ~ 9. 6	대전컨벤션센터(DCC)
광주광역시 (한)	2013 IEEE PDCH & IROA & ITCS 국제컨퍼런스	9. 4 ~ 9. 6	김대중 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 (한)	2013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9. 4 ~ 9. 6	벡스코
부산광역시 (한)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	9. 6 ~ 9. 9	벡스코
경상남도 (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9. 6 ~10. 20	산청군
대전광역시 (한)	대전국제합창심포지엄	9. 9 ~ 9. 13	대전시립미술관 대강당
전라남도 (한)	**제9차 NEAR 실무위원회 및 제1차 NEAR 농업분과위원회**	**9. 10 ~ 9. 13**	**전라남도 영암군**
제주특별자치도(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제주총회	9. 10 ~ 9. 14	제주시 칼호텔
대전광역시 (한)	대전국제합창제	9. 10 ~ 9. 14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아트홀
후쿠이현 (일)	SATOYAMA 이니셔티브 국제파트너십 제4차 정례회의	9. 11 ~ 9. 14	후쿠이시 등
부산광역시 (한)	2013 IT EXPO 부산	9. 25 ~ 9. 27	벡스코
대전광역시 (한)	UNESCO-WTA 국제공동워크숍	9. 25 ~ 9. 2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광역시 (한)	제10회 WTA대전하이테크 페어	9. 25 ~ 9. 27	대전컨벤션센터(DCC)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경상남도 (한)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9. 27 ~ 11. 10	합천해인사, 창원, 하동, 남해 등 경남일원
전라북도 (한)	전주세계소리축제	10. 2 ~ 10. 6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전광역시 (한)	2013 대전 국제푸드 & 와인 페스티벌	10. 3 ~ 10. 6	대전컨벤션센터(DCC), 무역전시관 등
부산광역시 (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10. 3 ~ 10. 12	영화의 전당 등
전라북도 (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10. 5 ~ 11. 3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한)	2013 제주국제 트레일런 대회	10. 6	서귀포시 일원
광주광역시 (한)	국제광산업전시회	10. 8 ~ 10. 10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구광역시 (한)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10. 13 ~ 10. 17	대구 EXCO
돗토리현 (일)	에코투어리즘 국제대회 2013 in 돗토리	10. 19 ~ 10. 21	돗토리현 요나고시 요나고 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 (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10. 22 ~ 10. 25	벡스코
전라북도 (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10. 24 ~ 10. 28	전주시(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 일원)
토야마현 (일)	**제11회 NEAR 환경분과위원회**	**10. 28 ~ 11. 1**	**오크스 캐널 파크 호텔 토야마**
광주광역시 (한)	제12차 세계한상대회	10. 29 ~ 10. 31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라북도 (한)	제8회 국제탄소페스티벌	11. 6 ~ 11. 8	전주시(전북도청)
광주광역시 (한)	국제그린카전시회	11. 7 ~ 11. 9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라북도 (한)	2013 국제인쇄전자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워크숍	11. 13 ~ 11. 15	전주시
광주광역시 (한)	광주국제식품전	11. 14 ~ 11. 17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구광역시 (한)	국제부품소재산업전	11. 20 ~ 11. 23	대구시
광주광역시 (한)	광주국제실버 & 휴먼케어박람회	11. 21 ~ 11. 23	김대중 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 (한)	제11회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11. 21 ~ 11. 23	벡스코
경상북도 (한)	**제10회 NEAR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12. 11 ~ 12. 13**	**제주 하야트 리젠시 호텔**

대외협력 네트워킹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ing

한중일 기업인 신년교류 리셉션 참석

2013년 1월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중일 기업인 신년교류 리셉션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황더 회장, 서울재팬클럽 고바야시 타다시 회장 등과 의견을 나누고 NEAR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비엔나 국제컨퍼런스 참석

2013년 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R20 Conference에 R20의 파트너로서, "성공을 위한 신흥 경제권 지방정부의 사례"에 NEAR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NEAR 회원국가의 현 상황을 소개하고 공동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와 파트너십 체결

2013년 2월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NEAR 사무총장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몽골학과장과 만나 향후 NEAR와 동방학연구소간의 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중국 산시성 방문

2013년 4월 중국의 회원단체 확대를 위해 NEAR 사무총장이 현재 옵저버 단체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산시성을 방문하고,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과 산시성 인민대표회의를 방문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동북아시아지역 지방정부간 상호교류협력 기회 증대를 도모하였다.

중국 중부투자무역박람회 (EXPO CENTRAL CHINA 2013) 참석

2013년 5월 중국 허난성에서 개최된 제8회 중국 중부투자무역박람회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 서미트 포럼을 참관하고 중국 지방정부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24회 중국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참관

2013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개최된 제24회 중국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 행사에 참석한 중국, 러시아 등의 대표들에게 NEAR를 홍보하고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제1회 한반도통일경제포럼 참석

2013년 7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한반도통일경제포럼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 한반도 주변국들간의 국경을 초월한 지역개발 및 협력에 주안점을 둔 신북방외교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전략을 모색하였다.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방문

2013년 8월 러시아 회원단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NEAR 사무총장이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를 방문하였다.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는 문화산업교류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NEAR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러시아 투바공화국 방문

2013년 8월 NEAR 사무총장의 러시아 투바공화국 방문에서 투바공화국은 농업분야, 광산개발, 철도사업 등과 같은 인프라구축과 문화교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당 개설을 위한 NEAR 사무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러시아 연해변경주 방문

2013년 8월 NEAR 사무총장의 러시아 연해변경주 방문에서 NEAR 사무국과 연해변경주는 국제포럼 등 각종 NEAR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회원단체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 방문에서 NEAR 사무국은 연해주정부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경상북도-이르쿠츠크주 의회 간담회 지원 및 주정부 방문

2013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이르쿠츠크주 의회 간담회 참석 및 이르쿠츠크주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의회 송필각 의장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를 방문하여 NEAR 사무국과의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으며, 12월에 개최하는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국제학술회의 참석

2013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제6회 국제학술회의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동북아 패권경쟁 · 영토분쟁과 한국의 중심축 역할"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지역 내 갈등을 분석하고 평화협력의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한 · 중 · 일 3개국 지방정부교류회의 참석 및 일본 회원단체 방문

NEAR 사무국은 2013년 11월 일본 토야마현에서 한 · 중 · 일 3개국 지방정부교류회의에 참석하여 한 · 중 · 일 NEAR 회원단체의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쳤다. 이어 회원자치단체인 교토부와 야마가타현을 방문하여 NEAR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비회원단체인 미야기현을 방문하여 NEAR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가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6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참석

2013년 11월 13일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제6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러시아측의 초청으로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였고, 이르쿠츠크주 주지사, 경제발전국 국장 등 이르쿠츠크주의 주요인사들과 양측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개소 2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2013년 11월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의 개소 20주년 기념 리셉션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 중앙정부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간 교류 · 협력의 지속과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향후 NEAR와 CLAIR 서울사무소간의 협력을 통해 한일 양국의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NEAR 사무국 직원과 간담회

2013년 12월 24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과 장세헌, 김희수, 김말분 도의원이 NEAR 직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사무국에서는 평소 NEAR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의 많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ational Forum
제5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
The 5th NEAR Intern
급변하는 21C 동북아의 비전, 다가오는
Transformation of Northeast Asia
Challenges and Prospects

연합 기반 강화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of the Association

1. NEAR Vision 2020 연구결과

가. 연구배경

1996년 창설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현재는 6개국의 76개 광역지방정부(5개 옵저버 포함)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지방정부간 국제협력기구로 성장하였다. 창설 25주년이 되는 2020년을 내다보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New Vision 2020)"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새로운 발전전략

2020년을 위한 NEAR의 미션 재정립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지방정부)들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단체간 연계협력과 동반성장을 증진하여 회원단체 구성원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을 포함하는 인간 안보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로 추상적인 설립 목적 대신 구체화가 필요하다.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첫째, NEAR 사무국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과 사무총장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무국 및 사무총장을 지원하는 전문가그룹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총장의 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14개에 달하는 현행 분과위원회(Sub-Committee)를 기능별로 대통합하여 3~4개의 위원회(Committee) 체제로 운영하며, 기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기능을 각 위원회내의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흡수한다. 신설 "위원회"에는 위원장(President)을 선정하여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며 각 위원회별로 세부분야별(sub-) 활동을 위해 이동 개최를 허용하고 정기적인 위원장 회의를 개최(운영방향협의 등)한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별 지도부(Presidium, Bureau)를 구성하여 총회와 실무위원회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전체회원국과 사무국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NEAR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국 및 조직 재정비

첫째, 대외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제적인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NEAR 사무국을 이전하거나 분국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컨벤션, 전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NEAR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셋째, 사무국의 안정되고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상근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장기적으로 상근 전문인력 중심으로 NEAR를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무국,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체계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회비제 도입

참가회원단체의 분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상운영비는 사무국을 장기 유치한 경상북도가 부담하며 사업수행, 공동과제 등은 회비로 충당한다. 회비분담비율은 차등제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액의 기본회비는 의무조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타 국제기구들의 사례에 따라 차등제를 적용한다.

회원단체가 참가하는 다양한 협력사업 시행

첫째, NEAR 청년인턴십(PioNEAR : Professional Internship Program of NEAR)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및 실업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NEAR 순회교육사업을 통해 회원단체 간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한다. 셋째, NEAR 문화유산지정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형 · 무형의 문화유산을 보호 및 관리하고 관광사업 활성화로 연결시킨다.

다. 요 약

NEAR는 새로운 전략적 장기비전 제시를 통해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NEAR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NEAR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NEAR가 준비하는 전략과 사업들은 NEAR 회원단체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창출에 기여하여 회원단체와 개별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

향후 NEAR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semi-UN과 같은 국제기구로 발전하여 국가 간의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 NEAR 청년인턴십 (PioNEAR) 프로그램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NEAR 청년인턴십(PioNEAR) 프로그램사업에 국립한국 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이영은 학생이 선발되어 러시아 투바공화국 "국립 중, 고등학교"와 "투바국립대학교"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교사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파견된다. NEAR 사무국에서는 참가자에게 비자발급비용을 지원하며 수용기관인 투바국립대학교에서는 숙소 및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3. NEAR 홍보동영상 제작

국내외의 NEAR 사무국 방문객에게 NEAR를 소개하고 각 행사 참여자 및 회원단체, 유관기관 등에게 NEAR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홍보동영상은 NEAR의 정체성이 담긴 이미지와 NEAR의 비전, 주요사업, 미래상, 주요행사를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행사 시 연합활동에 대한 홍보 및 이해증진, 글로벌 국제기구로서의 품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홍보동영상은 2014년 4월부터 NEAR 실무자 워크숍, 국제포럼, 총회, 분과위원회 등 각종 행사 시 NEAR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4. NEAR News 발간

격월간지인 NEAR News는 회원단체간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 메신저로 2005년에 창간되어 NEAR와 사무국의 국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소식지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특별기고, NEAR 활동, 사무국 소식, 회원자치단체 동정과 기획취재, 회원단체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EAR News 제 1판이 2005년 7월 발간되면서 매월 발간하다가 현재 격월로 2,100부로 확대 발간되면서 홍보기능이 강화되었다.

Welcome to
NEAR

사무국

The Secretariat

1. 사무국 설치

가. 개소일 : 2005. 5. 2

나.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내

– '04. 9월 : 제5차 헤이룽장성 총회에서 상설사무국 경상북도 설치결정

– '12. 7월 : 제9차 닝샤후이족자치구 총회에서 상설사무국 경상북도 장기존치

2. 사무국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사무총장, 1처 2과(기획총무과, 국제협력과)

나. 인력 : 16명 ; 총장, 경상북도 파견공무원 5명, 전문위원 6명, 회원단체 파견공무원 4명(일, 중, 러, 몽)

3. 기능

가.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다. 회원자치단체간의 업무연락 조정

라.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4. NEAR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http://www.neargov.org

사무국 직원

사무총장
김 재 효

사무처장
김 동 성

기획총무과장
박 창 호

국제협력과장
홍 정 우

오 명 호
(경상북도파견직원)

안 자 준
(경상북도파견직원)

이 혜 정
(중국전문위원)

예지엔원
(중국파견직원)

최 수 규
(일본전문위원)

이케가미 다카히사
(일본 파견직원)

르함 히식자르갈
(몽골전문위원)

시리즈 아룡졸
(몽골 파견직원)

최 주 화
(러시아전문위원)

온다르 사얀
(러시아 파견직원)

김 경 실
(영어전문위원)

김 유 진
(행정전문위원)

부록

Appendix

NEAR Members

China (6)	• Heilongjiang Province •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 Henan Province • Hubei Province	• Shandong province • Hunan Province
Japan (10)	• Niigata Prefecture • Shimane Prefecture • Aomori Prefecture • Yamagata Prefecture	• Toyama Prefecture • Hyogo Prefecture • Ishikawa Prefecture	• Tottori Prefecture • Kyoto Prefecture • Fukui Prefecture
South Korea (16)	• Gyeongsangbuk-do Province • Gyeonggi-do Province • Jeollabuk-do Province • Busan Metropolitan City • Daejeon Metropolitan City •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Gyeongsangnam-do Province • Chungcheongbuk-do Province • Jeollanam-do Province • Daegu Metropolitan City • Gwangju Metropolitan City	• Gangwon-do Province • Chungcheongnam-do Provinc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Incheon Metropolitan City • Ulsan Metropolitan City
North Korea(2)	• Hamgyeongbuk-do Province • Rasun city		
Mongolia (22)	• Tuv Province • Dornod Province • Dorno-govi Province • Bolgan Province • Arkhangai Province • Govi-Altai Province • Bayan-Ulgii Province • Darkhan-Uul Province	• Selenge Province • Sukhbaatar Province • Dund-govi Province • Uvurkhangai Province • Khuvsgul Province • Khovd Province • Orkhon Province	• Ulaanbaatar City • Khentii Province • Umnu-govi Province • Bayankhongor Province • Zavkhan Province • Uvs Province • Govi-Sumber Province
Russian (15)	• Khabarovsk Territory • Kamchatka Region • Republic of Buryatia • Tomsk Region • Altai Territory	• Sakhalin Region • Irkutsk Region • Chita Region • Krasnoyarsk Territory • Magadan Region	• Amur Region • Republic of Sakha(Yakutia) • Primorski Territory • Republic of Tyva • Kemeromo Region

NEAR Observers

China(4)	• Shanxi Province • Tianjin City	• Shaanxi Province	• Liaoning Province
Japan(1)	• Yamaguchi Prefecture		

NEAR Partners
- Assembly of European Regions(AER) Members

Albania (12)	• Berat • Fier • Lezhë	• Dibër • Gjirokastër • Shkodër	• Durrës • Korçë • Tiranë	• Elbasan • Kukës • Vlore
Armenia (24)	• Loŕi • Dubrovnik-Neretva • Koprivnica-Krizevci • Osijek-Baranya • Sibenik-Knin • Varazdin	• Tavuš • Grad-Zagreb • Krapina-Zagorje • Pozega-Slavonija • Sisak • Vukovar-Srijem	• Hrvatska (HR) • Istra • Licko-senjska • Primorje-Gorski • Moslavina • Zadar	• Brodsko-posavska • Karlovac • Medimurje • kotar • Split • Zagreb County
Austria (6)	• Burgenland • Salzburg	• Kärnten • Steiermark	• Niederösterreich	• Oberösterreich
Moldova (2)	• Cahul	• Soroca		
Nether-lands(4)	• Flevoland	• Gelderland	• Limburg	• Noord-Brabant
Norway (9)	• Akershus • Nordland • Vestfold	• Buskerud • Oppland	• Hedmark • Østfold	• Hordaland • Telemark
Poland (3)	• Woj.Dolnoslaskie	• Woj.Slaskie	• Woj.Wielkopolskie	
Portugal (2)	• Açores	• Madeira		
Republic of Macedonia (2)	• Eastern Region (Bregalnica)		• Pelagonia	
Romania (17)	• Alba • Bihor • Braşov • Covasna • Wien	• Arad • Bistriţa-Năsăud • Călăraşi • Dâmboviţa	• Argeş • Botoşani • Caraş-Severin • Tirol	• Bacău • Brăila • Cluj • Vorarlberg
Azerbaijan (2)	• Baku-Surakhani	• Shirvan		
Belgium (3)	• Bruxelles-Capitale	• Deutschsprachige Gemeinschaft		• Wallonie
Bosnia/ Herzegovina (12)	• Bosna • Herce-Bosna • Sarajevo	• Podrinje • Hercegovina-Neretva • Tuzla	• Brcko • Posavina • Zapadnam Hercegovina	• Distrikt • Republika Srpska • Zenica-Doboj

Bulgaria (1)	• Ruse			
Cyprus (1)	• Union of Cyprus Municipalities			
Czech Republic (2)	• Královéhradeck'y	• Olomouc		
Denmark (2)	• Nordjylland	• Syddanmark		
Finland (8)	• Etelä-Pohjanmaa	• Keski-Pohjanmaa	• Keski-Suomi	• Lappi
	• Pirkanmaa	• Pohjois-Karjala	• Pohjois-Pohjanmaa	• Satakunta
France (30)	• Alsace	• Aquitaine	• Auvergne	• Centre
	• Champagne-Ardenne	• Corse	• Dolj	• Galați
	• Gorj	• Harghita	• Hunedoara	• Ialomița
	• Iaşi	• Ilfov	• Maramureş	• Mehedinți
	• Mureş	• Neamț	• Olt	• Prahova
	• Sălaj	• Satu	• Mare	• Sibiu
	• Teleorman	• Timiş	• Tulcea	• Vâlcea
	• Vaslui	• Vrancea		
Russia (5)	• Ingushetia	• Karelija	• Mordovija	• Samara
	• Tatarstan			
Serbia (1)	• Vojvodina			
Slovakia (2)	• Kosice	• Trnava		
Spain (3)	• Catalunya	• Comunitat Valenciana	• Región de Murcia	
Switzerland (20)	• Aargau	• Basel-Landschaft	• Basel-Stadt	• Bern
	• Fribourg	• Genève	• Graubünden	• Jura
	• Franche-Comté	• Guadeloupe	• Guyane	• Ile-de-France
	• Languedoc-Roussillon	• Limousin	• Martinique	• Midi-Pyrénées
	• Picardie	• Poitou-Charentes	• Réunion (La)	• Rhône-Alpes
Germany (2)	• Baden-Württemberg	• Hessen		
Georgia (7)	• Adjara	• Guria	• Imereti	• Kakheti
	• Kvemo Kartli	• Shida Kartli	• Tbilisi	
Greece (3)	• Kentriki Makedonia	• Kriti	• Sterea Ellada	

Ireland (1)	• Donegal			
Italy (14)	• Abruzzo	• Basilicata	• Bolzano (Provincia)	• Campania
	• Friuli Venezia Giulia	• Lazio	• Molise	• Sardegna
	• Toscana	• Trentino-Alto Adige	• Trento (Provincia)	• Umbria
	• Valle	• d'Aosta		
Hungary (16)	• Bács-Kiskun	• Baranya	• Békés	• Luzern
	• Neuchâtel	• Nidwalden	• Obwalden	• Schwyz
	• St. Gallen	• Thurgau	• Ticino	• Uri
	• Valais	• Vaud	• Zürich	• Zug
Sweden (14)	• Dalarna	• Gävleborg	• Jämtland	• Jönköping
	• Kronoberg	• Norrbotten	• Örebro	• Östsam/Östergötland
	• Sörmland	• Uppsala	• Värmland	• Västerbotten
	• Västernorrland	• Västra Götaland		
Turkey (9)	• Bursa	• Denizli	• Edirne	• Istanbul
	• Kahramanmaras	• Kirsehir	• Kocaeli	• Samsun
	• Usak			
Ukraine (8)	• Dnepropetrovsk	• Donets'k	• Kherson	• Kirovograd
	• Kyjiv	• L'Viv	• Odessa	• Vinnytsia
United Kingdom (13)	• Hampshire	• Borsod-Abaúj-Zemplén	• Csongrád	• Fejér
	• Györ-Moson-Sopron	• Hajdú-Bihar	• Heves	• Jász-Nagykun-Szolnc
	• Komárom-Esztergom	• Pest	• Somogy	• Szabolcs-Szatmár-Be
	• Tolna			

- Regions of Climate Action(R-20) Members

Africa (8)	• Northern Region, Burkina Faso • Region Oriental, Morocco • Delta State, Nigeria • Dakar, Senegal	• Region des Haut Bassin, Burkina Faso • Region of Taza-Al Hoceima-Taounate, Morocco • Western Province, Rwanda • Matam, Senegal
Asia-Pacific (3)	• Gujarat State, India •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South Korea	• Cebu, Phillipines
Europe (6)	• Istria, Croatia • Puglia, Italy • Alba County, Romania	• Ile de France, France • Azores, Portugal • Donetsk, Ukraine
North America (9)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anada • State of Campeche, Mexico • State of Sinaloa, Mexico • State of California, USA • State of Michigan, USA	• State of Baja California, Mexico • State of Chiapas, Mexico • State of Quintana Roo, Mexico • State of Connecticut, USA
South America (2)	• State of Acre, Brazil • Pichincha, Ecuador	
Parthers :Int'l org (4)	• Assembly of European Regions(AER) •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ments(NEAR)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World Association of Regions, Metropolis	